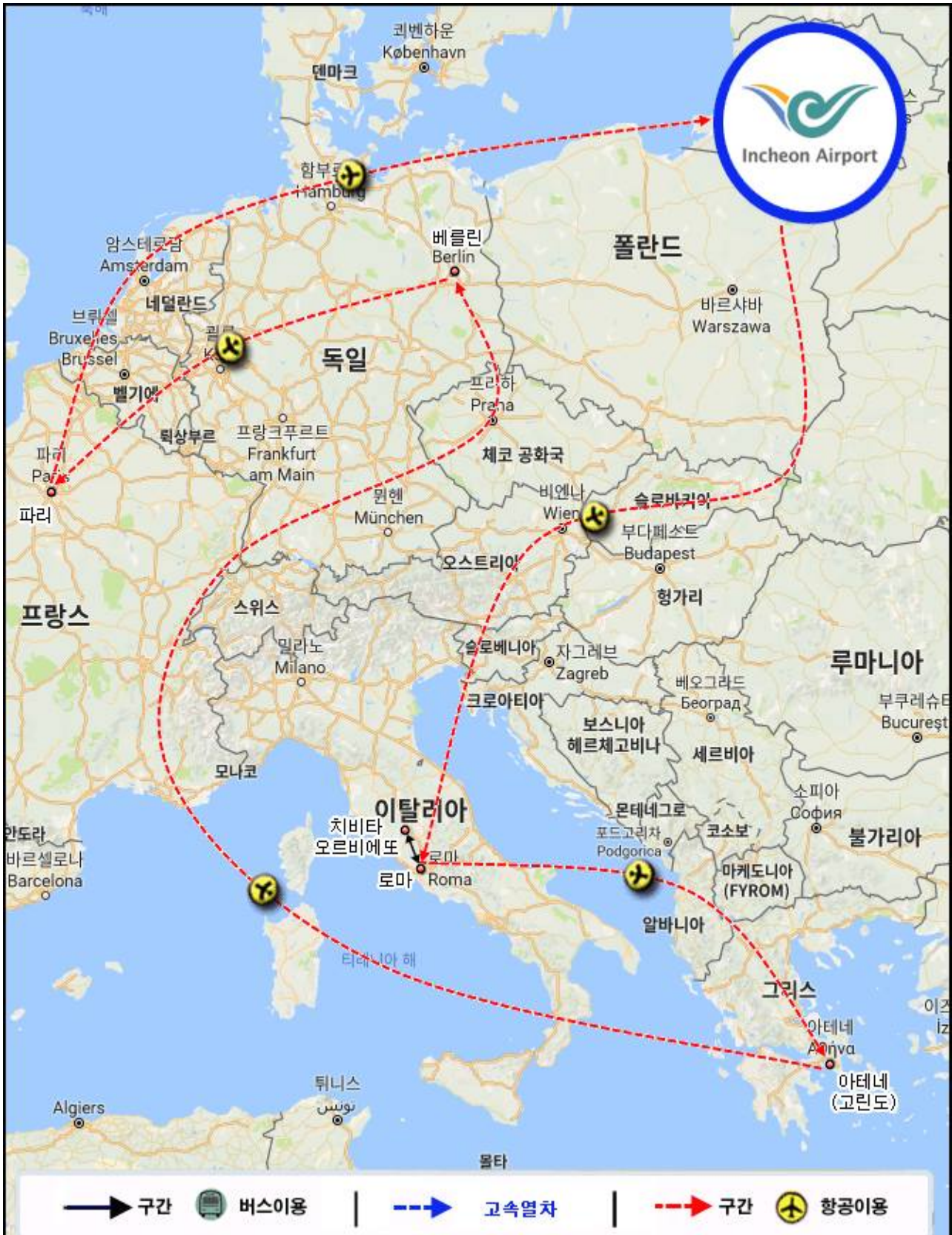


2017년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흐름도



목 차

I . 출장개요	1
① 목적	1
② 개요	1
③ 방문기관 및 주요 착안사항	2
④ 출장자 주요역할	3
⑤ 출장 세부일정	4
II . 주요 출장내용	6
① 이탈리아	6
② 그리스	10
③ 독일	15
④ 프랑스	19
III . 기타 활동내용	22
① 이탈리아	22
② 그리스	24
③ 독일	25
④ 프랑스	26
IV . 출장 후기	28

2017년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I. 출장개요

① 목 적

- ◆ 외국의 교육 정책 및 시스템, 시설 등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수사례의 의정활동 반영과 충남교육 발전방안 모색
 - ▶ 우수사례 수집으로 충남 교육 접목 방안 모색과 정책제안 등을 통한 의정 활동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
- ◆ 연수국의 교육제도와 문화를 경험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문화 공존 인식 함양

② 개 요

가. 출장기간 : 2017. 5. 20.(토)~5. 29.(월) 8박 10일

나. 인 원 : 13명(의원 8명, 전문위원실 3명, 교육청 2명)

다. 방문국가 :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프랑스

라. 주요내용

- 외국의 직업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 외국의 초·중등학교 방문을 통하여 선진 교육과정 도입 방안 모색 및 다문화교육, 학생 생활지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 선진 통일연구기관 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③ 방문기관 및 주요 착안사항

일자	방문기관	주요 착안사항
05.22. (월)	<p><이탈리아 로마> 국립기술학교 "헤인리치 헤르츠" ISTITUTO TECNICO INDUSTRIALE HEINRICH HERTZ</p>	<p>○ 직업교육 관련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기본현황 ▶ 학교 전반적인 교육과정 파악 ▶ 산업현장 적응 과정 및 만족도 파악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과정과 학교의 준비사항 파악 ▶ 충남의 직업교육 방향 모색
05.23. (화)	<p><그리스 아테네> "조그라프 4번 공립 중학교" 4th Gymnasio Zografou</p>	<p>○ 학교폭력 및 다문화가정 교육 관련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기본현황 ▶ 학교 전반적인 교육과정 파악 ▶ 학교폭력 발생현황 및 대처방법, 예방법 ▶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05.26. (금)	<p><독일 베를린> 통일연구기관 KONRAD AENAUER STIFTUNG AKADEMIE</p>	<p>○ 독일 통일교육 벤치마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상징의 현장 베를린 장벽 탐방 ▶ 독일 통일 전 교원 연수과정 ▶ 독일 통일 전 학생 교육과정 및 방법 ▶ 통일 직후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교육내용 ▶ 충남의 통일교육 방향 모색
05.27. (토)	<p><프랑스 파리> 프랑스 국립도서관 Biliotheque Nationale De France</p>	<p>○ 도서관 역할에 대한 자료 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현황 및 시설 견학 ▶ 지역사회에서의 도서관 역할 분석

※ 당초 5. 26.(금) 독일의 중등학교(프리드리히 베기우스)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독일 현지 학교의 휴업(단기방학)으로 인하여 방문이 취소되었고, 통일연구기관을 방문하였음

4 출장자 주요역할

분야별	직	담당	주요역할	비고
총괄	위원장	장기승	연수총괄	
직업교육 운영현황	의원	백낙구 오인철	이탈리아 국립직업학교 방문 ▶ 직업학교 교육과정 분석 ▶ 직업학교 학생의 현장 적응 효과 분석 ▶ 충남의 직업교육 교육과정과 비교 분석	
생활지도 다문화 교육현황	〃	김용필 이진환	그리스 아테네 중학교 방문 ▶ 다문화교육정책 파악 및 분석 ▶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 파악	
통일교육 운영현황	〃	이용호 서형달	독일 통일연구기관 아데나워 재단 방문 ▶ 통일·안보 교육 시스템 분석 ▶ 독일 통일 이후 교육방향 분석	
도서관 운영현황	〃	오배근	프랑스 국립도서관 견학 ▶ 도서관 운영 현황 파악 및 분석	
전문 위원실			▶ 국외출장 계획 수립 및 결과 정리 ▶ 연수일정 체크 및 관리 ▶ 공식 방문기관 섭외 및 견학자료 준비 ▶ 현장활동 지원 및 사진 관리 등	
집행부			▶ 충남 교육정책과 외국 교육정책 비교	

5 출장 세부일정

일자	장소	교통편	주요일정	비고
제1일 05.20. (토)	인천 이탈리아	 OZ561편	○ 인천공항 출발(12:30) ▶ 비행시간 13시간 5분 ○ 이탈리아 로마 도착(18:50)	
제2일 05.21. (일)	이탈리아 (로마)	전용차량	○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 천공의 성 치비타 탐방 ▶ 중세도시 오르비에또 탐방	
제3일 05.22. (월)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전용차량 FR1298편	○ 국립기술학교 "헤인리치 헤르츠" 방문 ▶ 직업교육 관련 벤치마킹 및 자료 수집 ▶ 학생들의 실습현장 견학 ○ 이탈리아 로마 출발(21:30) ○ 그리스 아테네 도착(24:25)	
제4일 05.23. (화)	그리스 (아테네)	전용차량	○ "조그라프 4번 중학교" 방문 ▶ 학교현황 파악(규모, 조직 등) ▶ 학교 교육과정 파악 ▶ 학교폭력 및 다문화가정 교육 시스템 파악	
제5일 05.24. (수)	그리스 (아테네) 독일 (베를린)	전용차량 U2 4616편	○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 고린도 유적지, 아크로폴리스 탐방 ○ 그리스 아테네 출발(21:25) ○ 독일 베를린 도착(23:25)	
제6일 05.25. (목)	독일 (베를린)	전용차량	○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 홀로코스트 추모관,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베를린 장벽, 통일정자 등	
제7일 05.26. (금)	독일 (베를린) 프랑스	전용차량 U2 4266편	○ 통일연구기관 "콘나드 아데나워" 방문 ▶ 통일교육 관련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 ▶ 우리나라 통일교육 방향 모색 ○ 독일 베를린 출발(20:35) ○ 프랑스 파리 도착(22:30)	

일자	장소	교통편	주요일정	비고
제8일 05.27. (토)	프랑스 (파리)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퐁텐블로 성 탐방 ▶ 밀레의 이삭줍기, 만종의 배경이 된 바르비종 탐방 	
제9일 05.28. (일)	프랑스 (파리)	전용차량 OZ502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국립도서관 "이나테크"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현황 및 시설 견학 ▶ 지역사회에서의 도서관 역할 분석 ○ 프랑스 파리 출발(19:50) 	
제10일 05.29. (월)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13:50) 	

II. 주요 출장내용

① 이탈리아

가. 방문국가 및 교육제도 현황




- 수도 : 로마
- 언어 : 이탈리아어
- 면적 : 약 30만km² 한반도의 1.364배
- 인구 : 약 6,185만 명 세계 23위
- GDP : 약 1조8,524억 달러 세계 8위

정식 국호는 이탈리아공화국(Repubblica Italiana, Italian Republic)이며, 수도는 로마(Rome)이다. 정치형태는 양원제를 가진 공화국이고, 국가수반은 대통령, 정부수반은 수상이다. 면적 30만 1340km², 인구 6185만 5120명(2015년 현재)이며, 인구의 대부분은 이탈리아인이다. 언어는 이탈리아어이며, 종교는 99%가 로마 가톨릭을 신봉한다. 기후는 알프스와 접한 북부 일부 지역은 겨울에 대륙성기후를 보이거나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전형적인 지중해성기후를 보인다.

이탈리아 교육

취학 전 교육기관으로 유치원이 있는데, 교사 1인당 아동수가 많으며, 시·구·읍·면의 유치원은 증가하고 있다. 초, 중학교와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제이다. 학년은 9월부터 6월까지로 3학기제이다. 중학교는 고전적 중학교와 직업준비학교로 나누어 진로를 명확히 했지만, 1960년부터 양자를 통일하여 의무교육단계에서 차별을 없애는 조치를 취했으며, 8개년의 통일학교제도가 확립되었다. 현재 5년제의 고등학교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첫 2년(Biennio)은 대부분 학교의 교육과정이 같으며 의무교육이다. 이후 3년(Triennio)은 본인이 원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선택해 진학한다.(사범, 경찰학교, 기술학교 등) 진학은 각 학교 졸업시 행하는 국가시험으로 결정한다. 대학교육 연한은 보통 4년인데 공학부는 5년, 의학부는 6년제로 되어 있다. 볼로냐(Bologna)·로마·살레르노(Salerno) 파도바 (Padova) 등 유럽 최고(最古)의 대학이 있고, 약 40개 대학이 전통적인 신학·법학·의학·철학 4학부를 갖지 않은 채 프랑스·독일의 경우처럼 종합대학의 밖에 있으면서 단과대학을 이루는 공학·농학·약학·수의학 등이 독립하여 종합대학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최소 수백명부터 최대 수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국립종합대학 이외에 유명한 것으로는 밀라노의 가톨릭 사크로쿠오레(Sacro Cuore) 대학교, 나폴리의 동양 연구소, 페루자의 외국인 대학 등이 있다. 교육행정은 중앙집권적인 색채가 강하며, 교육부가 그 정점이 되어 있다.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은 직접 교육부 산하에, 중등교육은 지방학무부 밑에 있는 장학관이 지역마다 감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 방문 기관현황

이탈리아 - 도제식 직업학교	
명 칭	ISTITUTO TECNICO INDUSTRIALE HEINRICH HERTZ
주 소	VIA WALTER PROCACCINI 70- 00173 ROMA
전화번호	39 06 1211 22805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학교는 1978년에 설립된 기술학교로서 과거에는 산업과 연계한 컴퓨터와 관련하여 특화된 학과로 출발하였고, 현재는 환경 관련 바이오 기술로 특화된 일반 중등교육인 Secondary (ages 11-18), 전문고교 의미인 Vocational / Technical 로마의 국립기술 교육학교이다. ○ 보통 성적에 상관없이 학생을 받아들이며, 정부의 지원에 의해 여타의 기술학교 보다 좋은 환경을 갖추고 학교의 운영은 후원 단체나 기관에서 일부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반드시 1개 이상의 특성화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취득에 관한 전문적인 특화 교육이 시행되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후원단체, 교장, 지역교육청 대표,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직원대표, 지역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각 과정별로 학교와 산업체가 연계하여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목록으로 제공하며, 대부분의 교육 과정은 관련 산업체, 업체, 전문가 및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으로 개발하여 교육 활동이 이루어짐 ○ 이탈리아 직업교육의 중점 추진 목표로 시대에 뒤지지 않는 혁신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졸업생들이 고용주로부터 인정을 받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및 연구 조직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여기에 각급 학교와 산업체, 지역 기관 등이 다수 참여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 ○ ITIS의 모든 평가는 교수에 의해 결정되며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가족까지 상세히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레지스터 상담 창구가 따로 있어 교육 사무국에 문의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다. 주요 질의답변 및 시사점

<<주요 질의답변>>

○ 귀 교의 특화된 교육과정은 무엇인지?

⇒ 1978년 설립 당시에는 산업과 관련된 컴퓨터 교육과정을 주로 하였으나, 현재는 화학, 물리, 컴퓨터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과 관련된 바이오 기술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 귀 교에서는 전문교과 이외에 다른 교과의 수업은?

⇒ 교육부에서 정한 수업 시간 외에 1년 200시간 정도 자체적으로 다른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현황은?

⇒ 우리 학교는 매 학년 진급 시 시험을 거쳐야 하고,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험은 없으나,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임

○ 이탈리아 학교에서 공모로 임용된 교장선생님이 있는지 여부?

⇒ 대부분은 자체 진급을 통하여 교장으로 임용되지만,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공모하여 임용되는 교장도 있음

<<시사점, 교육현장 활용방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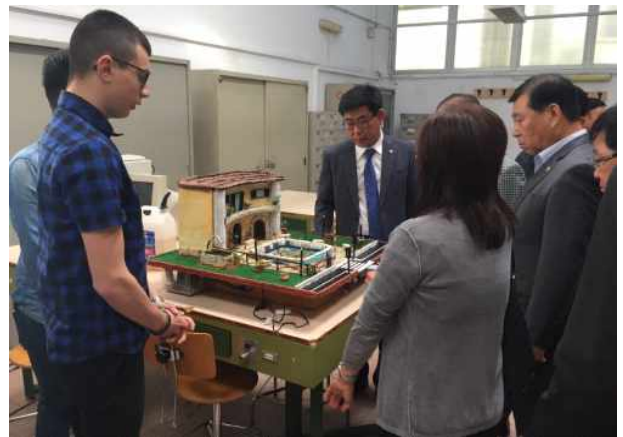
○ 우리 주변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물(주거 환경 시스템 연구, 토양의 수분 측정 도구 개발 등)들에 대하여 관련학과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학생들 스스로 연구하고 진지하게 실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 매 학년 진급 시험과 엄격한 졸업시험, 졸업시험 통과가 해당 분야의 자격증 취득이라는 제도는 학생들 스스로 학과 공부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 방문이 되었음
- 아울러 학교 설립 당시, 산업과 연계한 컴퓨터 관련 학과가 중점 교육과정이었으나, 현재는 환경과 관련된 바이오 관련 기술에 중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에, 충남의 특성화고에서도 사회적 변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세분화된 특화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마이스터고의 활성화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었음

라. 방문사진



현관에서 방문단을 맞이하는 교장선생님



학생들의 수업현장 참관



방문 종료 후 학생들과 기념촬영



방문 종료 후 교장선생님과 기념촬영

② 그리스

가. 방문국가 및 교육제도 현황



- 수도 : 아테네
- 언어 : 그리스어
- 면적 : 약 13만km² 한반도의 0.598배
- 인구 : 약 1,077만명 세계 82위
- GDP : 약 1,958억7,800만 달러 세계 48위

그리스는 남유럽 발칸 반도 남쪽 끝에 있는 나라이다. 정식 명칭은 헬라스 공화국 또는 그리스 공화국이다.

정부와 의회 형태는 중앙집권공화제와 다당제 그리고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형식적 의무를 가지는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통령은 자문기관인 국가협의회를 얻어 내각을 해임하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헬라의 한자의 음차 표기를 따라 희랍(希臘)이라고도 한다. 수도는 아테네이며, 주요 도시로는 테살로니키, 파트라, 이라클리오, 라리사, 볼로스, 요안니나, 카발라, 로도스, 세레스가 있다.

남유럽의 발칸 반도에 위치한 국가로,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불가리아와 북쪽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터키와 접한다. 그리스 본토의 동쪽과 남쪽으로는 지중해의 일부인 에게 해, 서쪽은 이오니아 해가 위치하며 1,400여 개에 달하는 섬과 바위가 흩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크레타, 로도스 섬, 산토리니 섬이 위치한 키클라데스 제도 등이 있으며 해안선 길이는 세계에서 11번째로 길다. 그리스는 냉전시기 공산주의 국가들과 인접하였고, 가상적국이던 터키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칸 반도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편으로, 그리스군은 유럽에서도 강한 편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스 교육

그리스에서 초등학교와 김나지움은 의무 교육이다. 탁아소는 의무는 아니지만 많이 이용한다. 유치원은 현재 4세 이상 유아에게 의무가 되었다. 아이들은 6살 때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6년간 다닌다. 김나지움은 12살에 들어가며 여기서 3년간 공부한다. 그리스의 의무 중등 교육 이후에는 두 가지 학교 유형으로 진로를 정할 수 있다. 상급 중학교와 기술 직업교육 학교이다. 여기에는 직업 교육 기관도 있는데, 하급 중학교(Gymnasio)와 상급 중학교(Lykeio)를 졸업한 학생들이 여기에 오면 정해진 특정한 교육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교육 방식으로 가르친다.

공공 고등 교육으로는 “최고 교육 기관“과 “최고 기술 교육 기관“ 이 두 가지 대학교 유형이 있다. 학생들은 상급 중학교(lykeio) 3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국가시험을 쳐서 대학에 입학한다. 22세 이상의 학생들은 추천 형식으로 그리스 개방 대학교에 입학한다. 아테네 대학교는 동지중해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다.

그리스의 교육 제도는 학습 장애나 다른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유치원, 초중등 학교도 둔다. 음악, 신학, 체육 분야의 전문 김나지움이나 고등학교도 있다.

나. 방문 기관현황

그리스 - 아테네 중/고 중등학교	
명 칭	Zografos 4th Lyceum
주 소	Zografos 4th Lyceum
전화번호	30 21 0770 5725
개 요	<p>1975년 설립된 중·고등학교 통합학교로 중학교 300명, 고등학교 300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한국인들도 15명이 재학 및 졸업한 학교이다.</p> <p>한국 학생들은 외교원 자녀들이나 1~2세대에 걸친 정착민들로 밝고 학교생활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음</p> <p>수업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걸으로는 무질서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의 체계가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하며 지도하고 있다.</p> <p>교과 교육이외에도 보건교육, 스포츠 활동, 축제활동, 예술활동, 환경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환학생으로 유럽 지역학교와 결연도 맺고 있다.</p> <p>명예학생 제도를 시행하여 학생들의 교과 성적 및 인성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학생 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 건의 사항 및 학생들의 대학 규칙을 스스로 정하게 하고 있다.</p> <p>체벌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교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교실 밖 복도에서 1시간 정도 벽을 보면서 생활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되면 하루 등교를 정지 시키고 3차례의 학부모 상담 후에도 계속 규칙을 어긴다면 전학을 시킨다.</p> <p>학교 대부분이 집 근처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전학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체벌로 여겨지고 있다.</p>
 	

다. 주요 질의답변 및 시사점

<<주요 질의답변>>

○ 학교 내 학생들의 흡연율과 지도방법은?

⇒ 학생들의 흡연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며, 흡연 발견 시 처벌이 이루어짐

○ 귀 교의 기숙사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떤 학생들이 이용하는지?

⇒ 그리스의 고등학교 이하는 기숙사가 없으며, 대학교도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많지 않음

○ 귀 교 출신의 정치 지도자가 있는지?

⇒ 우리 학교 출신의 정치지도자는 없으며, 농구, 축구 등 스포츠 스타는 있음

○ 현재 그리스는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데, 학교 예산적인 측면은 어떤지?

⇒ 그리스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정신적·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교육 예산 또한 교육청 등에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교사들의 1주 수업시간?

⇒ 1주에 18시간 정도임

○ 그리스 학제는 어떻게 되는지?

⇒ 유치원 2년의 의무교육, 초등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의 핸드폰 중독성이 심각한데, 귀 교 학생들의 핸드폰 중독성과 대처방법은?

⇒ 그리스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핸드폰 중독성은 심각함. 하지만 학칙 등 규율할 수 있는 제도는 없으며, 다만 현장체험 학습 등 자연과 교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음

○ 학교 내 학교폭력 증감율과 학교폭력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15년 전만 해도 그리스의 학교폭력은 전혀 없었음. 하지만 요즘은 알바니아, 무슬림, 아프리카 등에서의 외국인 유입으로 인하여 그리스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는 등 증가추세에 있음 또한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의 불화로 인한 학생들의 폭력 현상도 있음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 전학조치를 취하고 있음

○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음. 우리학교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으나, 초등학교는 학교 마다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음

<<시사절, 교육현장 활용방안 등>>

현재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어려운 경제여건과 사회 분위기에서도 밝은 모습의 학생들과 열정적으로 학교현황을 설명하는 교장선생님의 모습에서 그리스의 긍정적인 앞날을 볼 수 있었으며,

핸드폰의 중독성, 학교폭력 등에 대하여 학칙 등으로 억제하기 보다는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자연과의 교감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이탈리아 학교방문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중요성과 더불어 학생들의 심성을 올바르게 길러주는 인성교육의 중요성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음

라. 방문 사진



조그라프 4번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학교 시설 견학 중 기념촬영



학교도서관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교장선생님



학교도서관 자료검색 컴퓨터



학교현황 설명을 마치고 기념촬영



기념품 증정

③ 독일

가. 방문국가 및 교육제도 현황



- 수도 : 베를린
- 언어 : 독일어
- 면적 : 약 35만km² 한반도의 1.617배
- 인구 : 약 8,085만명 세계 17위
- GDP : 약 3조4,948억 달러 세계 4위

정치형태는 연방공화제 / 다당제 그리고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와 철·강철 제품을 수출한다. 1871년 비스마르크가 통일 독일제국을 건설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많은 영토와 모든 식민지를 잃었다. 히틀러가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유발되었다. 히틀러는 600만 명의 사람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다. 1949년 동서로 분할되었다가 1990년에 통일되었다. 현재 EU 회원국 간의 결속을 통해 서유럽과의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독일 교육

독일에서는 세 살이 되면 유치원에 갈 수 있다. 유치원은 의무 교육 과정이 아니다. 만 6살이 되면 초급 학교(Grundschule)에 가게 된다. 초급 학교 과정은 4년이며 의무 교육 과정이다. 초급 학교 과정이 끝나면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되는데, 이때 학생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9년 과정의 김나지움(Gymnasium), 6년 과정의 레알슐레(Realschule), 5년 과정의 하웁트슐레(Hauptschule)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린이가 초급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해야 할 때쯤 되면 담임선생님이 이 아이는 성격이나 지능을 감안해서 어느 상급 학교를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 의견에 따른다는 것이다. 김나지움은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하면 아비투어(Abitur)라는 학력 증서를 받게 된다. 이 증서는 해당인이 전인교육을 받았으며 앞으로 어떠한 전문 교육도 받을 능력이 있다는 증서이다. 이 증서를 받은 사람은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 분야 대학에 아무런 제약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자격은 평생 유효하다. 그러나 아비투어를 하고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레알슐레는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하면 미틀레라이페(Mittlere Reife)라는 학력 증서를 받게된다. 이 증서를 가진 사람은 대학 진학은 못하지만 일반 교양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무직이나 행정직(예를 들어 은행원, 경찰, 공무원, 비서, 이공계 기능직 등의) 직업을 배운 후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증서이다. 레알슐레 졸업 후 김나지움에 편입하여 아비투어를 할 수 있다.

하웁트슐레는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하면 하웁트슐압슈루스(Hauptschulabschluss) 증서를 받게 되는데, 이 증서는 직업을 배우기 위한 최소한의 학력은 소지하고 있다는 증서이다. 이 증서는 직업을 배우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 물론 하웁트슐레 졸업 후 레알슐레로 편입하여 미틀레라이페(Mittlere Reife)를 할 수 있다.

독일 교육의 감독 책임은 기본적으로 각 주에 있으며 연방정부의 역할은 크지 않다.

만 3~6세 사이의 어린이는 선택 과정인 유치원 교육을 받는다. 이후의 10년에서 13년의 교육은 강제적이다.

나. 방문 기관현황

독일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명 칭	KONRAD ADENAUER STIFTUNG AKADEMIE BERLIN
주 소	Tiergartenstr. 35 10785 Berlin
웹페이지	http://www.kas.de/wf/de/71.3710/
개 요	<p>자유, 정의, 연대감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AS)의 토대이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정당재단으로써 독일 기독교민주당(CDU)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독일 초대수상이자 기독교민주당(CDU)의 공동설립자인 콘라드 아데나워(1876-1967)는 기독교-사회적 가치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적 가치를 결부시켰다.</p> <p>콘라드 아데나워의 이념은 독일 민주주의의 부흥, 대서양간 가치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외교정책 정착, 유럽 통합 비전, 사회적 시장경제의 방향을 의미하고, 그의 이념을 따르는 것이 본 재단의 과제이자 의무이다.</p> <p>본 재단은 국제협력 업무를 통해 인간이 자유와 존엄 속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 속에서 독일의 증가하는 책임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본 재단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발전을 지원하며 전 세계 120개 국 70여 개 이상의 해외 사무소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평화와 자유 보장을 위해 저희 재단은 지속적으로 국외 안보정치 간담회 및 문화, 종교 교류를 후원하고 있다.</p> <p>인간 불변의 존엄성, 권리와 의무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핵심으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추구하는 사회 정의, 자유민주주의, 지속가능경제를 위한 출발점을 마련한 것 또한 인간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해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활발한 네트워크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정치적 지식경영은 사회 정의적, 환경 지속 가능적, 경제 효율적 글로벌화 실현을 위한 기회를 넓혀나가고 있다.</p>
	 

다. 주요 질의답변 및 시사점

<<주요 질의답변>>

○ 콘나드 아데나워는 어떤 재단인가?

⇨ 콘나드 아데나워 재단은 1955년 독일의 기독교민주당이 설립한 정당재단이고, 독일에는 모든 정당들이 재단을 설립하고 있음. 콘나드 아데나워는 독일의 초대 총리 이름으로 민주주의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시킴에 목적이 있으며, 독일의 평화통일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직원은 647명으로 1년 예산은 1억 6천만 유로이고,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하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책정된다.

○ 독일의 통일 전 구세대와 통일 후의 신세대 간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하여 극복한 방법은?

⇨ 옛 동독 지역의 기독교 세력에서 작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부분 갈등 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하여 큰 갈등이 없었다.

○ 충청남도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하여 지향할 점은 무엇인가?

⇨ 한국은 독일보다 통일에 대하여 준비가 더 철저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독일은 민간의 교류가 많았던 반면 한국은 북한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더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역사·정치적인 교육에 대하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하는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탈북자들을 활용하여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교육하여 서로에 대하여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시사절, 교육현장 활용방안 등>>

재단 측 담당자의 답변에서도 있었듯이 독일과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은 분명 달랐다. 자연스러운 민간교류가 잦았던 독일과 달리 우리의 현실은 가끔 스포츠 교류만 있었을 뿐 민간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실상과 통일의 필요성을 올바르게 심어 줄 수 있는 초·중·고 학교 급별 맞춤형 통일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다시금 일깨워준 방문이었다.

라. 방문 사진



기관현황, 통일교육에 대한 담당자 브리핑



콘나드 아데나워 재단 브리핑 청취



콘나드 아데나워 대회의실에서의 기념촬영



콘나드 아데나워 재단에서 기념촬영

4 프랑스

가. 방문국가 및 교육제도 현황



- 수도 : 파리
- 언어 : 프랑스어
- 면적 : 약 64만km² 한반도의 2.913배
- 인구 : 약 6,655만명 세계 21위
- GDP : 약 2조4,882억 달러 세계 6위

프랑스의 정치형태는 공화제 /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북동쪽으로 룩셈부르크·벨기에, 북서쪽으로 영국 해협, 서쪽으로 대서양과 비스케이 만, 남쪽으로 스페인·안도라·지중해, 동쪽으로 이탈리아·스위스·독일과 맞닿아 있고, 지중해의 코르시카 섬이 포함된다. 수도는 파리이다.

국민은 주로 프랑스계이다. 공식언어는 프랑스어이고, 종교는 그리스도교인에 로마 가톨릭 신자가 압도적이며 개신교·이슬람교·유대교도 있다. 화폐단위는 유로(€)를 사용한다. 육지의 반 이상이 농업에 적당하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간직한 넓은 삼림지역이 영토의 1/4가량을 덮고 있다.

프랑스는 소규모 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된 혼합 경제이다. 국가수반은 대통령이고, 정부의 수반은 수상이다. 의회는 양원제로 구성된다. 프랑스는 세계의 주요 경제 대국이고 유럽공동체(European Union/EU)의 창립 회원국이었다.

프랑스 교육

프랑스는 유럽 서부의 공화국으로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하나로 발전하여 왔으며, 문화·교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프랑스인의 특성으로는 합리성·명석·실증주의 정신을 중요시하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철저한 실력주의를 특색으로 하여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 제외된 난점도 있었다. 그래서 이를 조화시키는 가운데 참다운 교육개혁을 꾀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행정은 교육부→대학구(大學區)→주(州)→초등교육 장학관구라는 계통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많은 자문·협의기관의 존재와 동등한 위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는 현장의 교원도 많이 참가하고 있다. 중앙교육심의회·각국심의회·전문동수협의회(專門同數協議會)나 인사(人事)동수위원회·주(州)초등교육평의회 등, 교육이나 연구에 관한 전문적 기관으로는 기술연구기관으로서 '콜레주 드 프랑스'나 국립과학 연구센터, 교육연구 및 연수기관으로서 국립교육연구소·지방교육 자료센터 그리고 세브르 국제교육연구센터 등이 있다.

나. 견학 기관현황

프랑스 - 국립도서관	
명 칭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
주 소	25 avenue du Général Leclerc 93270 Sevran
전화번호	33(0)1 4383 7818
개 요	<p>프랑스 국립도서관(프랑스어: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은 프랑스 파리 시에 있는 국립도서관이다. 프랑스에서 출판된 모든 서적이 이곳에 집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p> <p>프랑스 국립 도서관의 역사는 1368년 프랑스의 샤를 5세 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루브르 일대에 터를 마련했다가 루이 15세 때 규모가 증대됐으며 1692년 일반에 개방됐다. 프랑스 혁명 동안 귀족과 개인 서적이 압류되면서 국립도서관 서적 수는 30만 권을 넘기도 했다. 혁명 이후 개최된 프랑스 제헌의회 결의안으로 이곳은 세계 최초인 1793년 민간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한다.</p> <p>1988년 7월 14일,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국립도서관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보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의 모든 지식을 포괄하며 모든 사람들이 최신의 기술을 배우고 거리낌 없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p> <p>국보급의 도서 이관을 마친 뒤 1996년 12월 20일 도서관은 다시 일반에 공개되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공공 건물로서 프랑스 문화부가 직접 관할하며 도서의 관리의 물론 프랑스에서 출판된 모든 서적과 작품을 보관한다. 이는 법적으로 국가의 의무사항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는 서적과 자료를 수집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데까지 이른다.</p> <p>도서 관련 자료나 다른 나라의 국립도서관과도 직접 교류를 펼치며 조사 프로그램을 연다.</p> <p>현재 대한민국의 고서인 직지심체요절과 왕오천축국전을 여기서 보관하고 있으며, 여기에 있던 외규장각 도서(의궤 포함)는 2011년에 대한민국으로 5년제 영구 임대됐다.</p> <p>역사학, 사회학 등 각 분야 연구를 진행하는 학술연구자들은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BNF)에 위치한 inatheque(이나테크)를 찾는다.</p> <p>도서관은 영화, 방송, 광고 등 영상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제작소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및 음원 자료를 제공한다.</p>

다. 견학 기관 사진자료



도서관 견학 기념촬영



도서관 내부에 있는 국립도서관 조감도



도서관 내부 모습



도서관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보는 모습들



도서관 내부에 있는 기념품 판매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물

Ⅲ. 기타 활동내용 [역사문화도시 탐방]

① 이탈리아 - "치비타 디 반뇨레쥬(Civita di Bagnoregio)" 탐방

<<주요현황>>

- "죽음으로 가는 마을", "천공의 성" 등으로 불리는 곳, 이탈리아의 "치비타 디 반뇨레쥬(Civita di Bagnoregio)"
- 2,500년 전에 고대 에트루리아인들이 처음 건설한 곳으로 중세의 신비로운 정취를 그대로 간직한 곳이며, 대지는 '토포'라고 불리는 화산분화에 의한 응회암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도 풍화가 계속되고 있는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
-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의 "천공의 성 라퓨타"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 이탈리아 로마에서 북쪽으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치비타는 현재 아쉽게도 오랜 시간 동안 자연 풍화작용으로 인해 벽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져 내려 사람들이 이사를 가지 시작해 현재는 10여 가구 정도만 살고 있다.
- 지반공사를 해서 더 이상의 무너짐이 없다고 하지만 꾸준히 바람에 흩날려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사진자료>>



② 이탈리아 - 중세도시 "오르비에또" 탐방

<<주요현황>>

- 로마에서 북서쪽으로 96km 떨어진 팔리아강(江)과 키아나강(江)의 합류점에 있다. 해발고도 195m의 바위산 위에 위치하며, 케이블카로 오르내린다. 주변의 비옥한 농업지대의 유통·산업·관광의 중심지이다.
- 고대 에트루리아의 12개 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뒤에 로마의 도시가 되었으며, 로마 시대 말기에는 우름스베투스라고 불렸다. 12세기에 자치제가 될 때까지 토스카나 백작령의 중심지였다. 1448년에는 교황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 1290년에 착공된 대성당은 이탈리아의 고딕 건축을 대표하는 건물로서 내부의 벽기둥에 있는 부조(浮彫)가 유명하며, 산브리치오 예배당의 내부는 프라안젤리코(Fra Angelico)와 루카 시노렐리(Luca Signorelli)의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다. 주교관저와 포폴로 궁전, 파피 궁전 등 13세기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다. 파피 궁전의 일부는 시민박물관이 되어 미술작품들과 불시니라고 하는 인근 에트루리아인(人)의 고분에서 발굴된 고대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다. 이밖에 산안드레아 교회(11~12세기)와 산도메니코 교회(1233~1264), 공원으로 쓰이는 옛 요새(1364), 산패트리티우스 샘 등 유명한 유적지가 있다.

<<사진자료>>



③ 그리스 - "고린도 운하" 및 "아크로폴리스" 탐방

<<주요현황>>

- 그리스의 고린도 운하는 아테네 서쪽 약 87km에 위치한다. 1893년에 완공되어 총 길이 6.34km에 수심은 8m이며 폭이 25m로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이다.
- 아크로폴리스는 그리스어로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한다. 도시국가의 군사적 요새 뿐 아니라 종교적 목적으로 활용됐으며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신을 모셨다.
- 고대 아테네를 수호하던 가장 강력한 존재이자 시민들이 사모했던 신은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였다. 위대한 유산으로 칭송받는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은 아테나 여신을 기리는 신전이다. 파르테논이라는 이름에도 '처녀의 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기원전 438년에 완공된 파르테논은 푸른 하늘을 지붕 삼아 46개의 기둥이 떠받들고 있다. 기둥의 지름만 해도 1.9m로 감히 한 아름에 안기에는 두툼하고 영험하다. 파르테논은 1600년대 중반 베네치아 군대의 포격으로 상처를 입었고, 주요 유물들 역시 약탈당해 런던의 대영박물관으로 옮겨진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다.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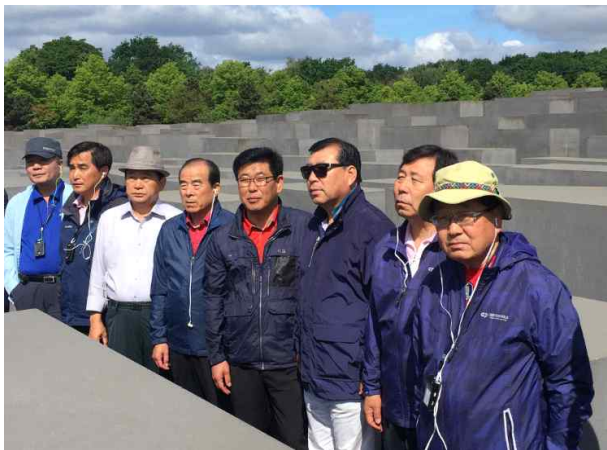


4 독일 -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베를린 장벽, 통일정자" 탐방

<<주요현황>>

-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는 베를린 장벽의 동쪽에 1990년 세계 각국의 미술 작가들이 그린 105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오래된 야외 공개 갤러리로 알려져 있다. 갤러리에 그려진 그림은 변화된 시간을 기록하고 행복감과 더 나은 희망,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더 자유로운 미래를 표현하였다.
- 주독일한국문화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정자를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의 베를린 포츠담 광장 남단에 설치했다.
-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로 살해된 유대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들이 전시된 곳이다. 나치의 대학살로 희생당한 수많은 유대인들을 기리기 위해 2005년도에 미국의 건축가 아이젠만에 의해 건축되었다. 이곳에는 콘크리트 비석 2,711개가 격자모양으로 늘어져 있다. 이 석비는 폭 65cm, 길이 2.375m에 높이는 0.2m에서 4.8m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다.

<<사진자료>>



⑤ 프랑스 - "퐁텐블로 궁전 국립박물관" 탐방

<<주요현황>>

- 파리에서 남동쪽으로 65km 되는 '퐁텐블로의 숲' 한가운데 있는 휴양지이다. 12세기 부터 왕실의 수렵지였으며, 특산물로는 포도와 퐁텐블로치즈가 알려져 있다. 16세기에 프랑수아 1세가 왕의 사냥숙소였던 곳에 궁전을 세우고 프랑스의 르네상스를 꽃피웠다.
- 퐁텐블로궁전은 이탈리아의 건축가·조각가·화가들을 초빙해 1528년에 착공하였으며, 마니에리스모 양식으로 장식한 '프랑수아 1세의 회랑', 앙리 2세가 만든 '무도회실'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이후 19세기 초 나폴레옹 1세가 퇴락해 있던 궁전을 복구하고 안뜰을 개방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등 개축하여 애용하였다.
- 1814년 나폴레옹 1세는 이곳에서 퇴위하여 엘바섬으로 유배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중(中)유럽군 총사령부가 설치되었다. 1981년 유네스코(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사진자료>>



⑥ 프랑스 - "바르비종" 탐방

<<주요현황>>

-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바르비종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으나 19세기 중반,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인 콜레라를 피해 파리를 떠나 가족들과 함께 이곳으로 온 화가 루소(Theodore Rousseau)와 밀레(Jean-François Millet)에 의해 근대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바르비종파의 근거지로 그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
- 바르비종파는 직접 야외에 나가 대 자연 속에서 풍경화를 그렸던 프랑스의 근대 풍경 화가들의 그룹으로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루소와 밀레 등이 그 중심축을 이루었다. 루소와 밀레는 이 마을의 이름을 딴 바르비종 미술 학교를 이끌었으며 바르비종 마을에서 생활하다가 1867년과 1875년에 각각 생을 마감했다.
- 바르비종 마을에는 오늘날 까지도 수많은 바르비종 파 화가들의 스튜디오와 갤러리가 남아있으며 거리 곳곳에 기념품 가게들과 관광객, 주말을 맞아 이곳을 찾는 파리 시민들로 북적 인다. 바르비종파가 활동했던 당시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지만, 자연과 전원생활을 사랑했던 화가들이 모여들었던 곳인 만큼 마을 곳곳에서 아직까지도 시골스러운 듯 하면서 소박하고 여유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사진자료>>



IV. 출장 후기

서유럽 4개국 출장을 마치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 기 승

5. 20.(토)~5. 29.(월) 8박 10일간의 서유럽 4개국 국외출장.....

지난 2월 계획되었던 국외연수가 국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한차례 연기되었던 연수였다.

선진 외국의 우수 교육정책 시스템 비교·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충남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문화 공존 인식을 함양하고자 실시하는 국외연수다.

더구나 이번에 방문하는 4개국은 우리나라 못지 않게 역사와 문화가 유서 깊은 국가들이 아닌가!!!

이런 나라들을 직접 가서 역사 유적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첫 번째 방문국가는 이탈리아.....

연수 시작 첫 날 휴일인 관계로 역사 문화 탐방의 일정으로 이루어졌는데, "죽음으로 가는 길" 또는 "천공의 성"으로 불리는 곳... "치비타 디 반뇨레쵸" 마을의 탐방이었다.

2,500년 전에 고대 에트루리아인들이 처음 건설한 곳으로 중세의 신비로운 정취를 그대로 간직한 곳이며, 대지는 "토포"라고 불리는 화산분화에 의한 응회암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도 풍화가 계속되고 있는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풍경은 가히 신비로울 정도로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치 하야오"의 "천공의 성 라퓨타"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다음 날 우리 교육위원회 연수단은 이탈리아의 "헤인리치 헤르츠"라는 국립직업학교를 공식 방문하였다.

1978년 처음 설립 당시, 산업과 연계한 컴퓨터 교육을 주로 하였으나, 현재는 화학, 물리, 컴퓨터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과 관련된 바이오 기술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충남의 특성화고에서도 사회적 변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세분화된 특화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마이스터고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렇게 이탈리아에서의 신비로운 풍경과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다음 방문국가인 그리스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며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보았다.

두 번째 방문국가 그리스.....

그리스 방문 첫 날은 "조그라프 4번 중학교"의 공식방문 일정이었다. 이곳에서 학교폭력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많은 질문과 답변을 들었다.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교장선생님의 답변 중, 학생들의 핸드폰 중독성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자연과의 교감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는 말씀에 충남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심성을 길러줄 수 있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였다.

공식 학교방문에 이어 그리스 역사 문화탐방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주나 부여처럼 아테네란 도시 전체가 고대 역사 유적지란 것이다.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신전, 제우스 신전, 최초 근대올림픽 경기장, 고대 아고라, 디오니소스 극장 등.....

고대 역사 문화 유적의 도시 아테네를 뒤로 하고 세 번째 방문국가인 독일을 향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독일의 베를린 공항에 도착하니 자정 가까운 시간이다. 호텔에 도착은 시각은 새벽 한 시 넘어.....연수단원들의 건강이 걱정이다. 너무 무리하게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닌지....

독일에서의 공식 기관 방문은 독일 통일에 큰 역할을 한 기민당 소속의 통일연구재단인 "콘나드 아데나워"이다. 독일에서 이틀을 머무는 동안 우리는 중학교와 통일연구재단 두 곳의 방문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중학교 방문을 잡은 날짜가 마침 연휴가 시작되어 독일의 학교들 대부분이 방학에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중학교 방문 취소의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는 알찬 탐방이 이루어졌다. 독일의 나치 치하에 학살된 유대인을 추모하는 박물관인 "홀로코스트 추모관", 베를린 장벽 동쪽 일부에 조성된 미술 갤러리인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주 독일한국문화원에서 우리나라 통일의 염원을 담아 세운 "통일정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였던 포츠담회담 장소인 "체칠리엔호프 궁전" 등 우리와도 역사적 인연이 깊은 장소들을 탐방한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 장소와 통일연구재단의 방문을 마치고 26일 저녁 8시 프랑스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한 국가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독일과 그렇지 않은 일본의 상반된 역사적 인식에 대한 생각.....독일의 통일연구재단 방문 시 들었던 한국의 분단국가라는 상황이 독일과는 다른 상황(독일은 통일 전 민간의 교류가 많았다고 한다.)이라는 차이점에서 남·북한의 실상과 상황, 올바른 통일인식 등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며 잠시 눈을 붙여 본다.

또다시 새벽에 호텔로 들어섰다. 이제 국외연수의 마지막 방문국가이다.

마지막 방문지인 프랑스에서는 관광명소로 유명한 에펠탑, 몽마르뜨 언덕, 밀레의 만종과 이삭줍기의 배경된 바르비종, 근대 건축물이 즐비한 프랑스 시내 등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역시 세계 1위 관광대국답다는 생각이 든다.

프랑스에서는 휴일이 겹치는 바람에 공식방문이 아닌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견학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도서관의 웅장하고 거대한 네 권의 책이 펼쳐진 듯한 건물 외관...가히 압도적이다.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은 우리나라의 도서관들처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역할보다는 자료열람, 역사학·사회학 등 각 분야 연구를 진행하는 학술연구자들이 자주 찾고, 영화·방송·광고 등 영상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제작소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및 음원 자료를 제공하는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견학하면서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우리나라의 직지심체요절이 보관된 장소라 하니 우리의 뼈아픈 역사를 다시금 되새겨 본다.

국외연수를 마친 후 한 주가 지났다. 이제 어느 정도 시차에 대한 여독이 풀렸다.

연수가 진행되는 동안 빡빡한 일정으로 인하여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많은 걱정에도 무사히 연수를 마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바쁜 공무에도 시간을 쪼개어 참석하신 교육청 국장님과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특히 일정 내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의원님들의 출장에 도움을 준 전문위원실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출장 후기를 마친다.